

장애인과 일터

Vol.344

2023 DECEMBER
KEAD Monthly Magazine

도란도란, 나눔의 기쁨



장애인과 일터
 KEAD Monthly Magazine



2023 DEC, Vol.344

도란도란, 나눔의 기쁨

한 해의 끝자락입니다. 올해 독자님들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웬지
 어렵기만 하십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연말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주니까요. 12월은 그저 좋은 사람들과 동그런 시간을 많이
 가져보세요. 한 해 동안 수고한 서로를 격려하며 도란도란, 다가올 새해를
 응원하며 도란도란, 나눔의 기쁨을 새록새록 느끼는 연말 되시기를.

공감, 두드리다

- 03 **공감 테마**
도란도란, 나눔의 기쁨
- 04 **생각 더하기**
굿윌스토어, 행복한 출근길 캠페인
- 06 **공감 인스타**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 08 **KEAD 사전**
보청기의 역사 알아보기
- 10 **일터 트렌드**
실험동물관리원

공감, 만나다

- 12 **행복한 내일**
“아나테이너로 한 걸음, 스스로 개척하는 내일이 기대됩니다.”
- 16 **함께하는 일터**
“도시형 스마트 팜에서 함께, 행복하게 성장합니다.”
- 20 **우리는 KEAD**
“나전칠기처럼 반짝이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 24 **KEAD 포커스**
공단의 나눔 프로젝트 알아보기
- 28 **세계는 지금**
중국, 사회주의 사상에 걸맞은 장애인고용 정책을 강조하다

공감, 함께하다

- 32 **트렌드 보고서**
이제는 MZ말고 잘파(Z+alpha)
- 34 **배리어프리 여행**
근대문화 도시, 군산
- 36 **컬처 플러스**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 38 **#공감태그**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 39 **KEAD 톨**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요약 편
- 41 **KEAD 뉴스**
- 42 **KEAD SNS**

도란도란, 나눔의 기쁨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주는, 나눔의 힘

앞만 보며 달려오다가 잠시 속도를 줄이고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요즘입니다. 내쉬는 가쁜 숨이 찬 공기에 부딪혀 하얗게 흩어지는 것을 볼 때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은 왜일까요, 한 해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에 쉬이 잠기기 때문이겠지요.

올해의 나는 무엇을 이루었는지, 혹여 또래의 다른 사람보다 뒤처지지 않았는지, 내가 노력한 만큼의 좋은 결과를 얻었는지...

하지만 이런저런 고민에 갇혀 너무 아쉬워하지는 마세요. 우리 주위에서 작지만, 아쉬운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는 순간들을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회사 동료가 아침에 건네준 핫팩, 붕어빵 냄새를 맡으며 미소 짓는 아이의 얼굴, 고양이의 잔소리가 무서워 퇴근을 서두르는 집사의 오종종한 걸음, 붐비는 대중교통 안에서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중년의 여성, 구세군 냄비에 기부하고 멋쩍게 갈 길을 가는 청년... 주위를 둘러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드는 일상 속 보석 같은 순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연말에는 사소한 걱정은 미뤄주세요. 우리에게는 지나온 길보다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많은 적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경험은 그 길을 걷는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줄 거예요. 한 해 동안 수고한 자신을 보듬어 주세요.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도란도란, 따뜻한 격려의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모두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굿윌스토어, 행복한 출근길 캠페인

글 한상욱 밀알복지재단 굿윌본부 본부장



굿윌스토어 밀알인천점의 장애인·비장애인 직원들

이익이 아닌 봉사, 자선이 아닌 기회!

굿윌스토어는 개인이나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선한(Goodwill) 가게다. 처음 미국에서 출발했지만, 발달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밀알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굿윌스토어는 2011년 송파 1호점을 시작으로 현재 전국 26개 지점에서 360여 명의 장애인을 고용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은 개점 10주년을 맞아 장애인 직원 24명에게 10년 장기근속패를 수여했다. 한 직장에서 10년 넘게 일한다는 것은 장애 여부를 떠나서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이들은 매 순간 행복했다고, 지

금도 출근하는 발걸음이 너무 즐겁다고 말한다. 홀로 딸을 키우며 도봉점에서 10년 근속한 직원 한 명은 “가족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는 것이 매우 소중한 일이자, 굿윌스토어를 통해 내 딸이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해줄 수 있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자선이 아닌 기회다. 그래서 굿윌스토어의 슬로건은 ‘자선이 아닌 기회(Not Charity, but a Chance)’이다. 장애인의 지속 가능한 기회는 자립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직장을 통해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발달장애인의 재능에 맞는 일자리 제공

202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발달장애인 10명 중 8명(79.7%)이 미취업 상태라고 한다. 취업 희망자는 많지만,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과 일자리가 부족해서 구직활동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굿윌스토어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희망을 주고 있다.

굿윌스토어 발달장애인들은 기증 물품을 분류하거나 진열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 규율에 맞춘 반복 작업에 재능이 있을 뿐 아니라 일을 통해 일상생활 훈련이 이뤄진다. 또한 물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고객을 만나게 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성이 향상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 바로 굿윌스토어가 발달장애인에게 있어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이유다. 코로나19로 매장 문을 잠시 닫았을 때 하루빨리 출근해서 직장 동료들을 만나고 싶다는 연락이 끊임없이 오기도 했다. 지금도 매일 출근 1시간 전에 도착해 하루를 시작하는 이들을 보면 굿윌스토어가 직원들에게 행복한 출근길을 선물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생각이 든다.

평범한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 방법

굿윌스토어에 기부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아이의 키가 자라서 입지 못하는 옷이나 읽지 않는 책, 새로운 제품을 사서 작동이 잘 되지만 쓰지 않는 가전제품, 이사를 하면서 사용하지 않는 가구 등을 기부할 수 있다. 우리 집에도 이런 물건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까운 곳에 있는 굿윌스토어 매장에 전달하거나 온라인(goodwillstore.org)으로 수거 요청을 하면 된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긴다.

기부자는 전달한 물품을 판매가로 환산한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값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판매된 수익금은 장애인 인건비로 사용되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든다. 또한 버려지는 자원을 선순환하여 환경도 보호하는 효과까지 있으니 참여하는 모두가 의미 있는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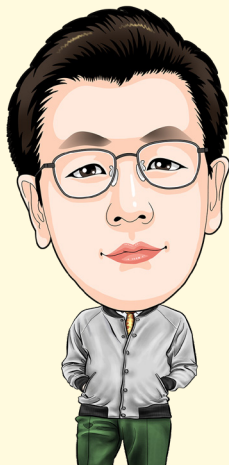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나눔을 통해 굿윌스토어 장애인 직원들의 출근길에 더 큰 행복을 가져다주는 따뜻한 연말이 되기를 희망해본다.

공단 직원들의 테마 이야기

함께 나눠요,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른 누군가와 무언가를 나누는 것은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원들 또한 일상생활에서 자신만의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소통하고 있을까.

정리 편집부 그림 CANEPAZZO



김기환 차장
일자리안정국 인식개선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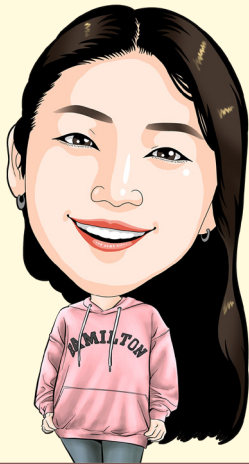
서로 함께 나누고 즐기는
그러한 사회를 소망해봅니다

일자리안정국 인식개선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범정의무교육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홍보하고, 교육 지원 위탁 사업 운영을 담당하고 있어요.

‘나눔’이라는 단어를 보니 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떠오릅니다. 이제 저의 일상생활 일부가 된 ‘물품 기부의 즐거움’인데요, 평소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집안 한편에 모아두었다가 재활용품 판매시설에 기부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방문 횟수도 점점 늘고 있어요. 또 판매시설 인근에 가게 되면 이곳에 꼭 들리게 되고, 아이의 책과 장난감을 발견하는 것도 주말의 일상이 되었지요.

제가 평소에 조금이나마 돕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저의 동생입니다. 그는 작은 실천이지만 학생 때부터 시작해서 취업 준비를 하는 시기에도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배려하는 마음을 닦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눔은 우리가 기부나 봉사라고 부르는 것 말고도 평소 즐기는 취미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도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소통을 통해 배우고 싶은 분들은 기꺼이 나서고, 나아가서는 함께 하고 싶지만 주저하는 분들을 위해 적극적인 모집도 더할 수 있지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좋은 정보를 알게 되었다면, 그것을 나누고 같이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조승희 과장
노동조합

“

따뜻한 말 한마디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총무국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임금 교섭, 고충 상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어요. ‘나누다’라는 사전적 어휘를 찾아보았는데요, 여러 가지 정의 중에 ‘말이나 이야기, 인사 따위를 주고받다’라는 의미가 가장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상생활 속 이야기를 좋아하는 친구, 동료, 가족, 이웃과 나누는 것이 저의 소소한 행복입니다.

예전에는 소속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적 취합을 위해 직원분들의 업무 외 사회공헌활동 내역을 조사했었지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직원분이 개인적으로 기부와 봉사활동 등을 하고 계셨어요. 의무가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동료들의 모습이 너무 멋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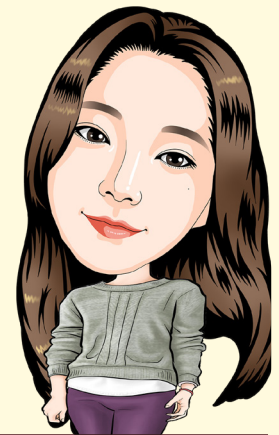
기부나 봉사활동 외에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나눔 실천은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았는데요, 추운 날씨에도 맛있는 음식을 배달해 주시는 기사님에게 또는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료들에게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보는 겁니다. 다정한 말 한마디가 따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아닐까요?

고용개발실 실용연구부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알기 쉬운 자료 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분들이 쉽게 정보를 접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노동 상식, 공단 서비스 안내 등 다양한 주제로 책자와 영상을 개발 중입니다.

저는 한 후원단체를 통해서 보육원 아동과 결연하여 꾸준히 후원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단체로부터 아동 성장 보고서와 아이가 쓴 편지를 받게 되었는데요, 편지를 읽으면서 평소와는 다르게 마음이 빈틈없이 꽉 채워지는 벅찬 감정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몇 달 전에는 한 여성이 비 오는 날 폐지를 줍는 어르신에게 우산을 씌어주고 현금을 쥐여드렸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어요. 낯선 누군가에게 우산을 씌어주는 일이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닐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런 따뜻한 행동을 보기도, 실천하기도 쉽지 않은 일이지요.

이를 통해 나눔이란 꼭 거창한 것이 아니라라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타인에게 경계심이 많은 요즘 같은 때에 작고 소소한 나눔을 베푼다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저 또한 곧 다가오는 연말에 늘 곁에서 묵묵히 응원해주는 가족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김예진 평가사
고용개발실 실용연구부

“

우리 모두 소소한 나눔으로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요

보청기의 역사 알아보기 어떻게 발전되었을까?

보청기는 청력이 약해 잘 들리지 않거나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소형 마이크를 이용해 소리를 모으고 증폭한다. 의학 및 과학 기술과 함께 꾸준히 발전해 온 보청기의 역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글 편집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보청기 변화 과정

17세기 초 영국의 의사인 '존 해링턴'에 의해 최초로 '이어 트럼펫'이 발명되었다. 동물의 텅 빈 뼈를 사용하여 단순한 형태로 제작했는데, 본질적으로 소리를 증폭시키기 위해 귀까지 들어 올리는 깔때기 모양의 장치였다. 보청기의 작은 끝부분은 귓속에 들어가고, 반대쪽 끝부분은 말하는 사람을 향해 있도록 했다. 이러한 장치는 '외부의 귀'와 같은 역할을 해서 소리를 모으고 집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17세기를 지나면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나팔형 보청기'와 '전성관(Speaking Tube)'이 사용됐는데 주로 나무,

은, 조개, 동물의 뿔로 만들었다. 이후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에는 나팔형 보청기를 황동이나 다른 금속을 이용해 만든 다음, 이를 경질고무로 감쌌다. 그리고 눈에 띄지 않도록 검은색을 칠했다. 이러한 나팔형 보청기를 사용한 유명인은 음악의 신으로 불리는 작곡가 ‘루트비히 판 베토벤’이다.

19세기 후반, 최초의 전기 보청기가 등장하면서 큰 변화가 시작됐다. 이 당시 전화와 마이크가 발명되면서 음향 신호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 주파수와 소리의 크기를 왜곡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밝혀져 이 기술로 보청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된 것. 미국의 전기 공학자이자 발명가인 ‘밀러 리스 허치슨(Miller Reese Hutchison)’은 최초로 탄소 발신기를 이용해 전기 보청기를 만들었다. 전류를 사용하여 약한 신호에서 강한 신호를 만들며, 소리를 증폭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보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보청기 등장

이후 1920년 미국의 엔지니어 ‘얼 헨슨(Earl Hanson)’이 진공관 보청기를 개발했다. 음성을 전기 신호로 바꾸고 변환된 신호가 수신기에서 나올 때 증폭되어 들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이전에 비해 작은 크기와 무게로 휴대하기에 편리했지만, 점차 장애를 가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요구로 크기는 더욱 작아진다.

1930년대에 이르러 ‘휴대용 진공관 보청기’가 발전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 세계 2차대전으로 인해 급속도로 성장한 군사기술의 발전은 소형화 보청기를 만드는 데 일조한다. 하지만 진공관 보청기는 쉽게 뜨거워지고 깨지는 단점이 있었다. 1950년대에는 이를 개선한 ‘트랜지스터 보청기’가 등장하기도. 그즈음 미국의 보청기 회사 ‘제니스는 트랜지스터 3개, 1.5V 배터리로 구동되고 볼륨 조절까지 가능한 ‘포켓용 보청기’를 내놓고 좋은 반응을 얻는다. 짧은 기간 동안 보청기의 성능과 편의성 부분에서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디지털 기술 발전이 가져온 큰 변화

1980년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접목한 ‘하이브리드 보청기’가 등장했다. 처음에는 디지털 신호 처리 기술을 이용해 아날로그 앰프를 제어하는 형식이었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보청기가 더욱 소형화되고 개인의 청력에 맞는 프로그램이 가능해지면서 더 많은 편의와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소음 제거 기능, 피드백 제어 기술과 더불어 주파수 채널별로 음량과 압축률을 실시간으로 제어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더 나아가 좌우 보청기의 무선 연결은 소음 환경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화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스마트폰과 블루투스 무선 연결로 여러 가지 앱을 사용하여 넘어지는 것을 감지하고, 약 복용 시간을 알려주어 건강을 확인할 수 있으며 동시통역 기능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보청기는 오래전부터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수없이 변화되어왔다. 무겁고 투박한 외형에서 출발해 현재는 작고 가벼운 디자인, 효과적인 기능, 스마트 기기와의 연동 등으로 사용자들에게 더 나은 청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섬세한 기술개발로 인해 청각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실험동물관리원 장년장애인 제약·바이오산업으로 진출하다

코로나19 감염병 이후 제약·바이오산업이 지속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로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인구 및 만성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치료제와 백신 개발의 수요 역시 커지는 실정이다. 공단은 이러한 고성장·신산업 분야인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장애인 일자리 창출 가능성을 살피고 ‘실험동물관리원’이라는 새로운 직무를 개발했다. 어떤 과정으로 탄생한 직무인지 자세히 소개한다.

글 편집부

* 공단의 직업영역개발 사업보고서를 재구성해 소개합니다.

미래산업인 제약·바이오산업에서 일자리 창출

제약·바이오산업은 현재 매우 각광받는 산업 중 하나다. 주요 제약기업들은 지난 팬데믹 이후 고용 규모를 확대했다. 특히 연구인력의 증가 폭이 내근이나 영업직보다 더욱 컸다. 감염병 위기 상황을 겪으며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는 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지난 9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주요 상장 제약기업 20곳의 직원 수는 총 2만 4,690명으로 전년동기대비 2.7% 늘었다.

팬데믹 3년 위기 상황에서도 제약바이오기업이 고용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됐다는 의미일 터. 이렇듯 제약·바이오분야 발전과 더불어 핵심 연구기반인 실험동물 연구자원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 동물실험 보호·복지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물실험을 수행한 기관에서 사용된 실험동물 수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기관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물실험 역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공단은 이러한 시류를 빠르게 읽고 장년장애인을 위한 신규 일자리를 개발한 것이다. 바로 ‘실험동물관리원’이다. 이 직무는 실험동물 사육관리를 위해 사료 및 음수 공급부터 사육공간 소독 및 청소까지 수행하는 일.



(주)종근당과 협업, 장년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발굴

공단이 장년장애인을 위해 실험동물관리원 직무를 개발한 이유는 이렇다. 장년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위험에 노출돼 취업 문이 다른 장애인들에 비해 더욱 좁은 편이기 때문이다. 50세 이상 장년장애인 실업자가 취업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업 상태를 지속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신의 나이를 꼽았다. 그만큼 장년장애인의 일자리가 다양하지 않은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하지만 장년장애인은 이전에 공단에서 개발한 ‘실버케어매니저’나 서울시에서 추진한 ‘반려견돌봄전문가(펫시터)’ 그리고 서울 관악구에서 진행한 ‘길고양이 관리인’ 사례 등으로 검증했듯이 다양한 돌봄서비스에 강점을 가졌다. 따라서 공단은 장년장애인과 실험동물관리원이라는 직무 매칭이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빠르게 추진해나갔다.

먼저 국내 대표 제약사인 (주)종근당에 협업을 제안했다. 물론 처음부터 설득이 쉬운 것은 아니었다. 종근당 담당자는 장애인고용 필요성에 공감하고 고용 의지도 있었으나 사업체 특성과 이에 맞는 적합한 직무를 발굴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공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고용 컨설팅을 진행했다. 연구소 내 실험동물관리 직무에 대한 발굴 및 연구소 현장 방문을 통해 세부 직무를 논의한 결과 (주)종근당은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명 합격, 장년장애인의 직무 활성화 계기 마련

이후 공단은 경기동부지사를 통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서류전형 합격자 대상으로 심층면접과 실험동물 접촉가능여부 확인을 위한 동물실 현장면접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사전에 면접관을 대상으로 면접 전후 장애 유형에 대한 이해와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 면접합격자 대상으로 동물실험의 특수성을 인지하도록 윤리적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도 마쳤다. 이로써 6명의 면접대상자 중 2명이 합격했으며, 2명 모두 50대 남성으로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합격자 2명은 실험동물관리원 직무 훈련을 열심히 했지만 아쉽게도 고용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면접 시 동물실 현장 방문 및 보호장비 착용 후 실험동물과 접촉을 통해 직무 수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실제 직무 수행 시 동물실의 환경 적응(동물접촉 포함)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공단은 이에 굴하지 않고 실험동물관리원의 직무 확산·보급을 위해 동종 제약·바이오사업체에 해당 직무를 지속적으로 제안했다. 사업체와 협의를 통해 실험동물 직접 접촉 직무를 제외하고 세척 및 소독 범위를 줄여 업무 강도를 조정하여 본 채용 전 현장에서 훈련프로그램 진행을 건의했다. 이러한 훈련프로그램 실시는 장년장애인에게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는 기회를 줄 수 있고, 사업체는 참여대상자의 직무수행역량 평가 및 업무조정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제약·바이오산업의 활황과 인력 확대는 장년장애인 고용 전망도 밝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장년장애인이 실험동물관리원으로서 근무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체, 병원, 대학교 등의 동종업계에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아나테이너로 한 걸음, 스스로 개척하는 내일이 기대됩니다.” 최국화 프리랜서 아나운서

장애를 갖게 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삶에 소홀할 수 없었다는 최국화 아나운서는 인터뷰 당일에도 누구보다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 환한 얼굴로 사람들을 맞이했다. 프리랜서 아나운서,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여행 프로그램 MC, 모델로 활약하며 다양한 면모를 보여줬던 그녀는 이제 본격적인 아나테이너*로의 한 걸음을 내디디며 스스로가 만들어갈 새로운 내일을 기대하고 있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 아나테이너: 아나운서와 엔터테이너를 결합한 단어로, 예능 활동을 병행하는 아나운서를 뜻함.



장애인 인식 개선·여행 프로그램 MC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최국화 아나운서

Q. 안녕하세요, 최국화 아나운서님,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아나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최국화입니다.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 아나운서 일을 해왔어요. 현재는 삼성물산 패션부문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히 입을 수 있는 의류 브랜드 하티스트의 앰배서더 모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다양한 삶의 접점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Q. 언제부터 어떻게 장애를 갖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2006년에 중국 유학을 하던 중이었어요. 현지인들에게 한글과 한국 문화, 노래를 알려주는 선생님이로 일을 하면서 공부와 병행했어요. 어느 때와 같은 생활을 하다가 집에 있는 계단을 내려가던 중 발을 헛디더서 사고가 났고, 척수 신경이 손상되면서 허리 아래는 움직일 수 없는 하반신 마비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술받고 2개월 후, 누운 상태로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Q. 올해로 15년 차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도 특별하다고 들었습니다.

사고 이후 한국에 막 들어오고 나서 현실 감각이 제로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으로의 복귀가 필요하니 재활을 했을 때였어요. 여러 재활병원을 전전하다 마지막으로 머무른 곳이 국립재활원이었습니다. 국립재활원에서는 일상으로의 복귀를 잘할 수 있도록 많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필요한 건 운전 교육이었어요. 그러면서 만나게 된 주치의 선생님이 저의 강사 경력을 아시고는 한 가지 제안을 해주셨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고 예방 교육, 장애인 배제나 차별, 편견을 없애는 인식개선 교육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가장 적합한 사람이 저라며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사고 후 1년이 채 안 된 시기라 사회에 나가기 두려운 상태였어요. 그때 제게 용기를 함께 불어넣어 준 사람이 제 친동생이에요.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게끔 환경을 마련해주신 주치의 선생님과 지금도 가장 가까이에서 도움 주는 친동생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를 양성하는 교육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장애인 인식 개선 강사를 양성하는 양성 교육을 2011년부터 해왔어요.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했고 강사분들도 꽤 많이 배출되었죠. 국립재활원 강사분들이 전국에 60명 정도 되는데 모두 제 트레이닝을 거친 분들이라 애정이 남다릅니다. 이렇게 장애인 인식의 지평이 조금씩 넓어진다고 생각하면 다음 강의 준비도 더욱 씩씩하게 하게 되죠.

Q.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커리어를 소화하면서 일인 다역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행 프로그램 MC도 하셨죠?

2012년, 규모가 있는 아나운서 양성 아카데미에서 오디션에 통과하면 무료 교육을 시켜준다는 공고가 났어요. 당시는 열심히 강사 생활을 하고 있을 텐데, 강의 내용에 대한 전달력을 높이고 싶은 마음에 지원했고 운이 좋게 붙었어요. 첫 교육을 받으러 간 날, 여행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PD님이 제안해 주셔서 국내 최초의 배리어프리 여행 프로그램에 MC가 되었어요. 당시만 해도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동권 개념이 많지 않을 때라서 사명감을 가지고 전국을 누비며 배리어프리 여행지를 소개했어요. 지금 막 나오는 배리어프리 여행 기사나 방송들을 보면 뿌듯함과 동시에 ‘내가 원조다’ 생각하곤 하죠. (웃음)

Q. 아나운서님이 진행하시던 KBS ‘최국화의 생활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앵커의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차분한 멘트 톤에 저절로 시선이 갔던 기억이 있어요. KBS 6기 장애인 앵커가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코로나 이후로 제가 했던 모든 업무가 중단되거나 취소됐어요. 무기력을 이기려 TV를 주로 시청했는데, 때마침 장애인 앵커가 진행하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뉴스를 전달하는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고 나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모습이었어요. 제가 장애를 갖고 병원에 누워 있을 때 들었던 생각이 ‘갈팡질팡하며 주저했던 일들을 왜 실행에 옮겨보지 않았나, 도전해보지 않았나’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게 제 나이 마흔에 KBS 장애인 앵커에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쟁쟁하고 젊은 분들 사이에서 긴장도 했지만, 오히려 ‘안 될 거야’라는 생각에 편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고 결국 통과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매일 KBS에 출근하며 치열하게, 즐겁게, 꿈같은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최국화 아나운서가 일에 대한 열정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Q. 매번 새로운 일을 개척하고 계시는데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 보여요. 내면에 어떤 원동력이 있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전 장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온전한 다리를 가진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도 첫 삽을 뜰 수 없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사랑하자고 다짐하고 매일 마인드 컨트롤을 해요. “후회 없이,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도전하자”는 게 제가 모든 일을 앞두고 가지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이들은 표현이 솔직한 편이니, 휠체어를 탄 저를 보고 어떤 말을 할지 지레 겁을 먹고 갔습니다. 오히려 한 아이가 제 다리를 만지면서 “선생님이 오셔서 너무 좋아요”, “집에 가서 선생님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거예요”라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간극을 좁히고, 편견을 없애고, 벽을 허무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Q. 이 많은 일들을 일정이 엉키지 않도록 잘 배분하는 것도 능력일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J(계획형) 성향이 아니었는데, 장애를 얻고 프리랜서 생활을 하면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우선 강의를 하게 되면 어떤 청자들이 오시는지를 파악하고 준비하고요, 행사 MC를 담당하게 되면 행사가 열린 배경부터 성격, 어떤 분들이 주로 참석하시는 곳인지를 파악한 후 스크립트를 직접 짜죠. 저는 ‘장애인이니까 그냥 좀 봐줄 수 있어’하는 인식을 안 받고 싶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꿈꾸면서 제가 어드벤처를 받는다는 게 허락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스케줄을 철저히 준비해 임하는 편입니다. 물론 이제껏 3천 번이 넘는 강연을 하면서 100% 스스로 만족한 강연은 없었어요. 안주하지 않고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계속 채우면서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Q. 아나운서님에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저희에겐 거룩한 문 같아요. 사회로 나아가는 문, 편견에서 공존으로 나아가는 문, 경제 생활로 나아가는 문.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공단과 협업을 할 때마다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행사를 준비하시는 직원분들을 보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느낌인 거죠. 이렇게 세심한 분들이 모여 평소의 업무도 꼼꼼하게 하시겠구나, 장애인고용 관련 사업을 허투루 만들지 않으실 것 같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Q. 구직과 취업을 앞둔 장애인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끊임없는 고난의 연속임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나운서가 되었잖아요, 저도 해냈잖아요.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진 여러분은 더 크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용기를 낸 만큼, 도전한 만큼 나의 세계는 넓고 방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는 2024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도시형 스마트 팜에서 함께, 행복하게 성장합니다.”

해피팜 협동조합, 첨단 농업분야 발달 장애인 맞춤형 직무 개발하다

도심 속에도 과수원이나 채소 농장을 지을 수 있을까? 서울 5호선 마곡나루역과 서울식물원을 잇는 연결통로에 자리한 도시형 스마트팜 ‘해피팜 협동조합’은 이런 질문에 온통 초록이 가득한 풍경으로 대답하는 곳이다. 발달 장애인과 함께 도시의 내일을 열어가는 해피팜 협동조합을 찾았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다함께 미소를 짓고 있는 해피팜 협동조합 직원들



더 나은 세상과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고민하다

도시 속에 스마트팜이 과연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매개가 될 수 있을까? 해피팜 협동조합은 초록이 주는 위대한 변화를 믿는 곳이다. 식물을 기르는 발달 장애인의 모습에서, 도시 속에서 신선한 먹거리를 맛보는 고객의 표정에서, 흙과 햇살 없이도 무럭무럭 자라는 새싹삼과 버터헤드의 변화에서 그 가능성을 만났기 때문이다.

도시형 스마트팜은 말 그대로 도시 유휴공간을 활용해 농업에 ICT나 IOT 기술을 접목하고 작물의 생육 환경을 원격·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을 말한다. 농작물의 재배생산, 연구에서 시작했지만 사업 모델의 안정화를 거쳐 작물을 활용한 화장품과 건강식품, 미니 스마트팜 재배기를 선보이는 등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다. 물론 이는 안정적인 작물 생산 시스템이 있기에 가능한 일. 해피팜 협동조합의 스마트팜 첨단 기술은 날씨와 관계없이 실내 온도를 섭씨 20~22도로 일정하게 유지해 사계절 내내 같은 품질의 채소를 생산해 낸다. 미세먼지나 농약, 병충해로부터 자유로운 것도 큰 장점이다. 해피팜은 스마트팜 운영을 시작하던 초기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일자리 채용을 염두에 뒀다. 매일 정성과 애정을 들여야 하기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동시에 근무 환경이 안정적이며 변수는 적고 성취감을 가질 수 있다는 특성이 발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3년 전 한 명의 발달 장애인을 채용하고 직무 설계부터 장애인에게 잘 맞도록 설계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그 결과 현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 훈련을 마친 발달 장애인 10명을 직접 고용했으며, 훈련생 2명도 함께하고 있다. 이는 해피팜 전체 직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로, 장애인은 모두 오전과 오후 교대근무이자 정규직으로 채용되어 있다.



노혜리 주임이 새싹삼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하슬기 반장이 토마토 나무에 물을 주는 모습

스마트팜 분야 신규 장애인 직무의 탄생

해피팜은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남부지사와 함께 스마트팜 분야 신규 직무인 ‘스마트팜 시스템 운용 관리직’을 개발 중이다. 이 직무는 농작물의 재배나 수확 외에도 적절한 생육환경을 위한 재배실 온습도 측정 및 정보 수집, 작물 입출고 기록 등 스마트팜 시스템 전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해피팜 역시 ‘스마트팜’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대부분이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나 ICT 기술이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다. 시스템이 잘 운영되도록 농장주의 관점에서 전체 흐름을 살피고 관리하는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 식물 역시 기계가 아닌 살아있는 생명이기에, 아무리 일정한 환경에서 재배한다고 하더라도 변수가 존재하고 이는 농장을 잘 돌보는 농부의 깊은 관심이 있어야 발견할 수 있다. 해피팜이 스마트팜 시스템 운용 관리직을 개발한 데는 스마트팜이 가진 가능성이 더 선명해질수록 그 핵심에는 사람이 있으며, 이를 발달 장애인 맞춤형 직무로 개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내일을 담보하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그 결과 해피팜 협동조합은 최초의 도시형 스마트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되었으며, 발달 장애인 스스로가 즐겁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새싹삼을 통한 판로 개척으로 더 높이 성장하다

팬데믹에 이어진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은 해피팜 협동조합이 현재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이기도 하다. 하지만 끊임없는 연구 및 제품 개발로 매출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매출 증대는 해피팜에 취업을 원하지만 운영의 어려움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해 안타까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이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연계고용 제도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안정된 소득창출로 발달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고자 하는 해피팜의 바람은 확고하다.

해피팜 협동조합은 팜카페를 오픈해 실내 농장의 푸릇푸릇한 풍경을 바라보며 신선한 농작물과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선보였다. 우울증에 시달리던 고객이 팜카페를 찾을 때마다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고 말할 때, 직원들은 보람을 느끼곤 한다. 훈련과정 중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했던 발달 장애인이 직업훈련의 반복 과정을 거쳐 채용되고, 직접 생산한 새싹삼을 원료로 개발한 탈모샴푸와 바디로션, 기억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황기새싹 음료가 출시를 앞두는 등 회사의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갈 때도 성취감을 느낀다. 특히 해피팜에서 선보이는 새싹삼은 뿌리는 물론 잎과 줄기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어 삼 한 뿌리에 들어있는 사포닌 성분을 온전히 섭취할 수 있으니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해피팜은 각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 스마트팜이 조금씩 늘어나는 현실이 무척이나 반갑다고 말했다. 물론 선발주자로서 어깨가 무겁기도 하다. 스마트팜 후발 주자들에게 견학이나 자문을 제공할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스마트팜 시스템 운용 관리직 개발을 기점으로 발달 장애인이 스마트팜 분야의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안정적 안착과 확산에 힘쓸 계획이다. 이에 더해 현재 서진학교와

업무 협약을 통해 현장실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스마트팜 분야를 선도하는 해피팜 협동조합의 성장이,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내일로 이어지길 바란다.

미니 인터뷰



최정원 이사

“느림의 미학으로 틔우는 희망 새싹!”

해피팜은 말 그대로 ‘행복한 농장’을 목표로 모두가 행복한 일터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직무 능력은 꾸준한 반복과 기록으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순환 업무를 거쳐 가장 잘할 수 있는 직무를 찾은 후에는 그 변화를 꾸준히 기록하고 분석해 업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격려와 지지는 직무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장애인과 함께 일하는 비장애인이라면 모두 장애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지요. 조금은 느리더라도 느림의 미학이 주는 교훈을 깊이 새기고, 곁에서 응원할 때 근로자의 진가는 빛을 발합니다. 차별 없는 고용을 위해 모두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노혜리 주임

“나만의 미니팜을 운영하고 싶어요.”

저는 해피팜 협동조합에서 새싹삼을 키우고 깨끗하게 다듬어 도장까지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이곳에서 일한 지 3년 정도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조금 낯설었던 기억도 납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잘 적응해 주임으로서 동료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식물을 키우는 게 익숙하지 않아 실수도 있고 어렵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활동을 지원해 주는 박교수님이 있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작물을 심고 난 후에 매일 자라는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낍니다. 언젠가 저만의 스마트팜을 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때까지 새싹삼을 튼튼하게 키우겠습니다.



하슬기 반장

“주임으로 승진하는 내일을 꿈꿔요.”

새싹삼을 심고 키우는 재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진학교에 다닐 때 인턴으로 일을 시작해 벌써 2년이 되었는데요.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적금도 들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을 때 행복해요. 일하면서 친구도 많아졌고요. 처음에는 새싹삼을 키우며 모종(묘삼)을 거꾸로 심기도 했어요. 지금은 연습을 많이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일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트로트 노래도 부르고요. 그렇게 신나게 일할 때 매일매일 재미와 보람을 느낍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주임으로 승진하고 싶어요. 돈도 더 많이 벌고,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으니까요!

“나전칠기처럼 반짝이는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휴성 전문위원

올해로 3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하고 능력개발국 운영부장을 담당했던 박휴성 전문위원이 12월 공단과 아쉬운 이별을 앞두고 있다. 퇴직을 목전에 두고 33년의 공단 생활을 갈무리하는 기회이자 작가 인생의 빛나는 시작을 알리는 개인전인 <나전칠기 이야기>를 연 그의 뜨거운 소회를 들어봤다.

글 편집부 사진 김덕창



최근 공예작품 개인전인 <나전칠기 이야기> 전시를 연 박휴성 전문위원

Q. 안녕하세요 박휴성 선생님.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33년을 직업훈련교사로 근무한 박휴성입니다. 1990년 10월, 우리나라 최초의 장애인 공공훈련 기관인 일산장애인직업훈련원(당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목칠공예과 나전칠기 전문교사로 입사했습니다. 현재는 본부 교사직 전문위원으로 공로연수 수행 중입니다.

Q.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33년을 근무하셨습니다. 처음 입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나전칠기 입문 13년 차에 일본에서 나전칠기 복원공사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한국나전칠기보호협회에서 ‘장애인직업훈련기관에서 나전칠기 기술교육 담당교사를 찾는다’는 이야길 전해주셨어요. 그 이야길 들은 후 제 목표는 하나, 장애인들에게 나전칠기 기술을 전수해 기술인으로 당당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단과 소중한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Q. 선생님께서 45년 동안 해오신, 그리고 공단에서 직업훈련교사로 장애인들을 지도했던 나전칠기, 일반인들에게는 익숙하면서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나전칠기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나전칠기는 한자로 소라 라(螺), 비너 전(鈿), 옷칠할 칠(漆), 그릇 기(器)입니다. 바다에서 나는 전복, 소라 등의 색상이 좋은 조개를 용도에 맞게 가공하고 각종 도안의 문양을 세공 또는 굽음질하여 기물에 부착하고 표현해 여러 번의 칠을 입혀 완성합니다. 나전칠기의 뼈대가 되는 백골의 재료에 따라서 나무가 중심이 되는 목심칠기, 칠이 중심이 되는 건칠, 도자기가 중심이 되는 도태 칠기, 대나무에 칠을 하는 남태 칠기 등 다양한 종류로 확장 및 가공될 수 있는 공예입니다.

Q. 2023년 12월 퇴직을 앞두고, 작가 인생의 출사표를 던지듯 개인전 <나전칠기 이야기>를 고양아람미술관에서 여셨습니다. 직장 생활과 개인전 준비를 병행하기에 힘들진 않으셨는지요?

제2의 인생을 준비하라고 준 공로연수 기간이 제겐 큰 기회였습니다.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작품에만 몰입할 수 있었어요. 건칠 바탕작업을 해두고 완성하지 못했던 작품을 새로 작업하기도 했고 일반 대중이 보기에 ‘예쁘다, 갖고 싶다, 멋지다’는 마음이 들 수 있는 생활공예품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2년 5개월을 달려온 것 같아요. 덕분에 이번 전시에 뜨겁게 작업한 250점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5kg 정도 살이 빠졌다가 지금은 원상 복귀가 되었네요.(웃음)

Q. 250점이라니, 그간의 고뇌를 어렵פות이 짐작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작품 중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을까요?

여로(旅路)와 염원(念願), 이 두 작품이 가장 마음에 납니다. 이 작품들은 1995년과 1996년 장애훈련생들에게 나전칠기 제작기법 교육 표본으로 제작한 작품이에요. ‘여로’는 인생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나아가는 여행길이라는 뜻을 담아 만들었어요. 다양한 굵음질 기법과 칠로 학생들이 보고 잘 따라할 수 있도록, 나전칠기 작업의 결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일산직업능력개발원 본관 1과 2층 사이에 전시돼 있어요. ‘염원’이란 작품은 장애훈련생들의 당당한 앞날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아 건칠로 반복적인 선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Q. 3년의 공단 생활 중 잊지 못할 추억이 있으실까요?

물론이죠. 정말 여러 순간들이 제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1990년대 초에 우리나라 최초로 장애인 공공 직업훈련으로 개소했을 때 학생모집을 홍보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역사 곳곳을 누비면서 포스터를 직접 붙였어요.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사업체를 방문하면 경비실에서 문전박대 당하기도 했고, 반대로 기꺼이 고용하겠다고 취업확인서에 서명이라도 받는 날엔 하늘을 나는 듯한 행복함과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했지만, 학생들도 정말 열심히 해줬죠. 규모도 시스템도 완벽하게 갖춰지지 않은 초창기지만 그때의 풋풋함과 열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Q. 수많은 학생들, 동료들과 관계를 맺으셨을 텐데요. 기억에 남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수료한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연락을 주는 수료생이 있어요. 사지합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에 열심히 임해준 친구입니다. 인연을 잊지 않고 소중히 여겨 주기적으로 연락을 주는 게 고마울 따름이죠. 그리고 제가 처음 여기 목칠공예과에서 함께 근무했던 이은오 선생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억에 남지요. 1990년부터 지금까지 쪽 옆에서 함께 근무하시다가 10여 년 전에 먼저 퇴직하셨는데 어제는 전시회에 오셔서 축하도 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인연들이죠.

Q. 나전칠기를 훈련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어떤 부분들이 도움이 되길 원하셨을까요?

나전칠기는 계속 앉아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행동반경이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아마비나 절단장애, 왜소증과 같은 성장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장애인친화적인 기술이었어요. 그들이 집중하면서 꼼꼼하게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 성취감과 예술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물론 지금은 나전칠기 교육을 운영하고 있진 않지만 당시에 학생들이 서툰 솜씨로나마 완성했던 작품들이 기

억에 오래 남습니다.

Q. 올해 12월 퇴직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공단 생활을 꾸준히 해나갈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사람은 스쳐 가는 바람에도 영혼을 느낀다.” 라는 문장을 어느 시기부터인가 제가 만들어 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데요. 내가 하는 말과 행동 그리고 진심은 누구에게나 다 전달이 됩니다. 상대도 느끼고, 심지어 스스로도 느낄 수 있죠. 누구에게나 진심으로 대하고, 스스로에게도 진실로 대하면 ‘나’라는 향기는 은은하게 꽤 멀리까지 퍼질 거예요. 같은 직장 동료에게도, 우리 훈련생들에게도, 취업을 앞둔 장애인분들에게도 성심을 다하는 저마다의 ‘나’가 되길 기원합니다.

Q.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전을 준비하면서 크게 느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목표에 이를 수 있다는 것과 욕심이 과하면 어떤 형태로든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직업훈련을 할 때도 학생들에게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으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다고 격려했던 것처럼 저를 다독이고 격려하면서 개인전을 완성했습니다. 욕심이 과하긴 했습니다만, 적당한 욕심은 때론 강력한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함께 세상을 향해 문을 두드리신다면 언젠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지평이 열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양한 종류로 가공하여 진열한 나전칠기 작품

공단의 나눔 프로젝트 알아보기 함께 나누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오래전부터 행복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최근에는 공단의 특성을 중점적으로 살려 사회공헌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데, 이 중 대표적인 활동들을 자세히 소개한다.

글 편집부

무장애 도시환경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식 기념사진



하나. 카리쓰마 프로젝트

먼저 '카리쓰마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카리쓰마는 오타가 아니다. '카(Car)를 리사이클링하여 쓰임이 있는 곳에 마음을 나눈다'라는 뜻. 카리쓰마 프로젝트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2021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회공헌으로 올해 세 번째 시즌을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공단과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민간)

그리고 경기도기술학교 등 3개의 기관이 함께하고 있는데 각 기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공단은 불용예정 업무용 차량 기부 및 장애인차량 무상점검을 총괄 기획하고 진행(정비 희망 장애인 모집 등)한다.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로 이뤄진 경기도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민간)은 매년 자동차 무상점검 재능기부 봉사에 참여하고 정비 부품 등을 지원한다. 경기도기술학교는 차량 무상점검 장소 및 정비 부품 지원, 무상 정비 활동 시 보조 인력으로 학생이 참여한다. 올해로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한 이 프로젝트는 지난 6월에 경기도 이천에서 장애인차량 무상 정비를 해줬으며, 11월에는 불용예정 업무용 차량을 학생 실습용으로 기부하기도 했다.

카리쓰마 프로젝트는 3년간 총 247대의 장애인차량을 무상으로 점검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전한 자동차 생활을 지원했다. 또한 장애인차량에 대해 공임비 20%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착한정비소’¹⁾ 94개소를 운영하여 장애인의 차량 정비 및 관리비용 절감을 지원했다. 더불어 경기도기술학교 자동차 정비학과에 현장정비 실습과 국가공인자격시험 수검을 위한 교육용 차량을 총 17대 기증하는 등 직업 전문성 향상에 도 이바지했다.



카리쓰마 프로젝트에서 장애인차량을 무상 점검하고 있는 모습



카리쓰마 프로젝트인 ‘자동차정비학과 교육용차량 기증식’ 기념사진

1) 장애인차량에 대해서 간단한 점검 및 상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기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소속 정비소

둘. 시시각각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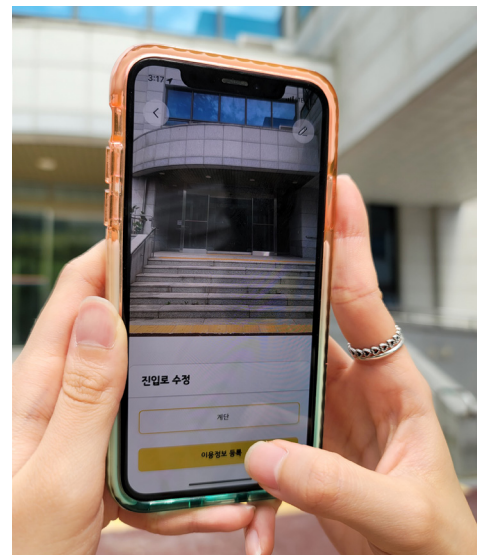
시시각각 프로젝트는 ‘각각(各各)의 눈(視)을 모아 장애인의 눈(視)이 되어준다’라는 의미다. 이 프로젝트는 공단에서 2022년부터 협업형 사회공헌으로 추진하여 올해 두 번째 시즌을 진행하고 있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한 관심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은 이동에 있어 불편을 겪는다. 특히 지역 내 이동 시 도보 이용(휠체어 포함) 비율이 15.1%로 교통수단 중 2위를 차지하지만, 적합도와 만족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도보 내비게이션은 건물을 점으로 인식해서 시각장애 및 휠체어 이용장애인들이 목적지에 도착해도 입구를 찾지 못하거나 계단 등 장애물로 인해 출입에 많은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단은 빅데이터 구축을 위한 전용 앱 ‘로드 스캐너(Road Scanner)³⁾’를 적극 활용했다. 출입구·경사로 등 교통약자를 위한 빅데이터를 수집(참가자가 출입 경로, 편의시설 등을 애플리케이션으로 촬영하여 업로드)하고, 기존 도보 내비게이션의 사각지대를 해소했으며 무장애 도시환경을 조성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22 정부혁신 경진대회 2관왕(고용노동부 최우수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달성하기도 했다.

시시각각 프로젝트는 2년간 77개 기관(임직원 15.7만 명)이 참여했으며, 정보접근성 빅데이터 67,246건을 수집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도시환경 구축에 앞장서고 있다.

셋. 병아리 프로젝트

병아리 프로젝트는 공단에서 올해부터 진행하고 있는 친환경 사회공헌으로 ‘병뚜껑을 모아 아이들의 장난감으로 리[Re]메이크’한다는 뜻이다. 최근 기업의 ESG 활동 중 환경(E)에 초점을 맞춘 사회공헌활동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 해양생태계와 인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미세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행동에 동참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학대 피해 아동과 탈북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디지털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령화와 노인 빈곤 등 사회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을 통한 노인 삶의 질 향상이 필요한 상태다.



시시각각 프로젝트를 위해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모습

2) 「2020년도 교통약자 이동 편의 실태조사」 결과

3) 엘비에스테크가 개발한 소셜 맵핑 플랫폼으로 건물 출입 정보와 보행로 위의 장애물 촬영 및 업로드를 통해 보행 안전 지도 구축을 목표

이에 공단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임직원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플라스틱 병뚜껑 수집을 추진했다. 플라스틱 병뚜껑 업사이클링 과정(병뚜껑 세척·분류·파쇄 작업)을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폐플라스틱을 업사이클링해서 만든 교구재 기증을 통해 청소년의 디지털 역량을 강화했다.

공단은 먼저 재생 소재 생산이 가능한 전문자원 순환기업 ‘코끼리공장’과 연계해 공단 전 직원이 참여하는 플라스틱 병뚜껑 기부 캠페인을 기획했다.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3개월 동안 공단 임직원이 캠페인에 전사적으로 참여하여 플라스틱 병뚜껑을 수집하고, 9월에는 폐플라스틱으로 제작한 코딩교육용 교구재(40개)를 학대 피해 아동과 탈북청소년의 디지털 교육용으로 기증했다.

공단의 임직원은 총 1,203명이 참여하는 높은 호응도를 보였고, 개인별 100개 이상의 플라스틱 병뚜껑을 기부했다. 이 같은 임직원의 노력으로 공단은 123,491개의 플라스틱 병뚜껑을 기부하고, 467kg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업사이클링 과정을 통해서 울산지역에 노인 일자리 60개를 창출했다. 또한 친환경 코딩교육용 교구재(코봇) 40개를 기증해 디지털 사각지대에 놓인 미래세대에 지원했다. 이렇듯 친환경 사회공헌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버려지는 플라스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환경에 관한 임직원의 관심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병아리 프로젝트를 통한 친환경 코딩교구재 기증 모습

중국, 사회주의 사상에 걸맞은 장애인고용 정책을 강조하다

‘장애인연합회 전국대표대회’를 통한 의지 표명

지난 9월, 중국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장애인연합회(CDPF) 제8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는 시진핑 국가 주석을 비롯한 리창, 자오러지, 왕후닝, 차이치, 덩쉐상 등 기라성 같은 중국 공산당의 주요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이 장애인 정책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보여주는 최대 규모의 행사이기도 했다. 이번 호에서는 격변하고 있는 중국의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본다.

글. 이정주 누림센터 센터장



지난 9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장애인연합회 제8차 전국대표대회’. 사진 신화통신사 기자 팡싱레이

시진핑, 더 나은 장애인 복지를 위한 포부 강조

시진핑 주석은 지난 가을 열린 ‘장애인연합회(CDPF) 제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장애인 돌봄’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 그는 이날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반영해 당과 국가가 장애인을 위한 대업 완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애인 유형 단체와 더불어 장애인 노동자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또한 중국 사회주의의 완성은 그 무엇보다 장애인들이 더 많이 일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중국 공산당의 존재 이유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구두선에 그치지 않았다. 지난 9월 1일 제정된 <배리어프리 환경 건설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신체장애인의 이동 제한을 철폐하는 원년이 되겠다고 의지를 보인 것이다. 곧 있을 제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에서 ‘장애인 이동 재활 및 지원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 법률을 결의할 것이며, 장애인의 사회보장과 개호(介護)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온 중국 장애인 복지의 발전과 위업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중국에서는 장애인연합회 전국대표대회에 중국 최고의 권력자인 시진핑과 고위당원, 관료들이 참석하는 건 놀라운 일은 아니다. 8,500만 중국 장애인을 향한 국가 주석의 메시지는 장애인과 그 가족, 더 나아가 사회적 약자에게 마음을 울리고 중앙, 지방정부, 장애인 단체, 기관들은 일사불란하게 후속대책 마련의 시발점이 된다.

배리어프리(BF)를 지향하는 장애인 환경 개선법 제정

실제로 중국 장애인 복지, 특히 장애인고용은 최고 권력의 관심에 힘입어 강력한 제도로 발전했다. 중국 「장애인보장법」과 「장애인취업조례」에 근거하는 몇 가지 제도를 살펴보자.²⁾ 첫째, **집중배정** 취업이다. 정부가 설치한 복지기업³⁾에 장애인을 집중적으로 배치하는 취업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표준사업장과 유사하다. 둘째, **비율분산** 취업이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업체 의무고용제도를 뜻한다. 중국 사업체는 ‘전체근로자의 1.5%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비율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5%~2%에서 정해져 있다.⁴⁾



중국장애인연합회 회장 장하이디¹⁾가 ‘시진핑의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 지도하에 장애인 대업의 전면적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당에 보고하는 장면

1) 장하이디(Zhang Haidi) 중국장애인연합회(CDPF: China Disabled Persons' Federation) 의장이 2016년부터 올해까지 RI 회장으로 활동
 2) 세계장애인동향(2019) 김병철 참고
 3) 복지기업은 전체근로자의 2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며 장애인 근로자 수는 그중 10명 이상 이어야 한다. 복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수첩’이나 ‘장애인군인증(1급~8급)’을 소지해야 한다.
 4) 예를 들면, 북경시는 「장애인보장법」과 「북경시 비율에 따라 장애인을 취업하는 취업 방안」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북경시 행정 구역 내의 국가기관, 준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 등 사용자는 장애인을 재직 인원의 1.7% 이상 의무 고용을 하게 되어있다.

셋째, **공익성** 취업이다. 우리나라의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와 유사하다. 역시 지방정부에 따라 공공일자리의 비율이 다르다. 예를 들면 산시성, 네이멍구 자치구, 닝샤 회족자치구, 후난성, 산둥성, 쓰촨성 등은 10%이며 간쑤성, 티베트, 광저우시 등은 장애인들을 30% 공익성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넷째, **보조성** 취업이다.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시설에 가깝다. 경제활동인구 중 노동생산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적·정신·중증 지체장애인을 위한 일터다.

2015년 7월 중국은 8개 중앙 정부 공동으로 「장애인 보조서 취업을 발전시키는 데 관한 의견서」를 제정했다. 2017년까지 모든 직할시, 2020년까지 모든 현(시)급에 적어도 한 곳의 장애인 보조성 취업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을 높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

중국 정부는 장애인 미고용사업체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장애인취업보장금(약칭: 잔보금(殘保金) 징수제도가 있다. 우리나라 장애인고용부담금과 같은 성격이지만 규모는 다르다. 우리는 최저임금의 60%를 부과하고 있지만, 중국은 해당 지역 평균임금 기준이다. 상시근로인원에 따라 적용이 다르다고 해도 얼핏 중국의 부과금(장애인취업보장금)은 우리나라 부담금에 비해 꽤 커 보인다. 이런 점에서 중국 기업은 꽤 압박받을 것이다. 그래서 수조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제 위기는 장애인고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간의 기업 압박을 거두고 기업부담을 완화해주고 있다. 먼저 2020년 1월부터 장애인취업보장금을 차등 부과했다. 1%~1.5% 미만일 경우 3년간 납부해야 할 금액의 50%, 1% 미만인 사업체는 90%로 경감 해주고 있다. 의무고용을 면제해주는 사업체도 기존 20명 이하 기업에서 30명 이하 기업으로 잠정적으로 확대해주었다. 그동안 직접고용만 허용했는데 과건 노동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모두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려는 중국 재정 당국의 기업 꺼안기로 보인다.

애당초 이 조치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 방안이었다. 그러나 계속 이어지는 경제 위기로 중국 정부는 올해 초(2023년 3월) 2027년까지 연장할 것을 결정했다. 이를 통해 다소 주춤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의 일면을 볼 수 있다. 그렇다고 중국이 장애인고용에 대한 열의가 식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도 그랬듯이 국가 경기에 따라 장애인고용은 부침이



图为中国法制出版社出版的大字版《中华人民共和国无障碍环境建设法》(含立法说明)。

중국 배리어프리를 지향하는 장애인 환경개선법(2023.9.1.제정)

있을 수밖에 없다. 중국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맞는 장애인고용을 이어갈 것이라고 본다.

중국의 장애인고용 정책이 기대되는 이유

장면을 바꾸어 본다. 2002년 여름 한·일 월드컵이 한창일 때 중국 칭화대, 북경대 교수 등을 포함한 중국 장애인고용연구단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했다. 그 당시 중국 장애인연합회 초대 회장 덩푸팡⁵⁾도 방문단의 일원이었다. 사회주의 이념을 기반으로 시장경제 부흥을 외치던 중국은 사회주의가 보호해야 할 대표적인 집단, 장애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대안으로 찾은 것이 장애인고용정책이었다. 이후 여러 차례 방문이 이어졌고 2007년 5월 ‘중국 장애인 취업조례’가 제정됐다.

중국은 모든 장애인 서비스를 장애인연합회로 일원화시켰다. 장애인고용, 복지, 체육, 고용, 문화관광, 이동, 보조공학, 배리어프리 등. 심지어 장애인 수첩, 증명서 발급까지 하나의 기관에서 집행하는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했다. 중국 공산당은 장애인연합회 상임위원에게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다고 한다. 이들의 눈에는 우리나라 최저임금 60%는 큰 부담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래서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을 마지널(Marginal) 부담으로 정했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들만의 해결 방법으로 장애인고용 문제를 해석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변화를 목도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이행경제체계(Transition Economy System)를 구사하는 세계 유일의 국가, 중국의 장애인고용은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지 여전히 기대된다.



장애인연합회 전국대표회의에 참석한 주요 인물들과 장애인 참석자들의 연호에 화답하는 시진핑

5) 1944년 출생한 덩푸팡(鄧朴方)은 1962년 베이징대 기술물리학과에 입학했다. 1968년 문화대혁명 때 홍위병의 협박에 시달리다가 베이징의 한 건물 3층에서 몸을 던진 후 하반신이 마비됐다. 1988년 중국장애인연합회를 창설해 오랜 기간 주석과 명예 주석을 맡아왔다.

이제는 MZ말고 잘파(Z+alpha) 디지털로 무장한 ‘진짜 요즘 애들’

묵은해를 떠나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의 계절 산업계도 ‘뜨는 해’ 맞이에 여념이 없다. 미래의 주축이 될 소비층을 잡아야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법. 이제 세상은 MZ 세대가 아닌 잘파(Z+alpha)세대에 주목하고 있다. 2025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새로운 핵심 소비 주역 잘파세대. 이들은 누구일까.

글 강나경 자유기고가



스크린에이저, 잘파세대는 누구인가

잘파세대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와 2010년대 이후에 태어난 알파(α) 세대의 합성어다. 이들은 스마트폰 대중화로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환경에서 성장했기에 이전 세대보다 최신 기술과 문화를 빠르게 소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에 익숙하다. ‘인터넷을 도구가 아닌 공간으로 인식’하는 이들은 전통적 의미의 사회성은 낮지만 디지털 문해력을 바탕으로 국경의 구분이 없는 가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세계와 소통한다. 클릭과 터치만으로 지구 끝까지 닿는 진정한 스크린에이저(Screenager)이기도.

특히 저출생 시대에 태어난 잘파세대는 친인척으로부터 경제적 조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구매력도 높다. 그래서 이들은 ‘텐포켓(10 pocket: 용돈을 주는 사람이 10명 이상이라는 뜻)’, ‘골드 키즈(Gold Kids)’ 등으로도 불린다. 또 어린 나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팬데믹을 겪은 이들은 불확실한 미래보다 현재를 중시하며 그 어느 세대보다 자기 자신을 중시한다. 때문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뛰어난 정보력을 바탕으로 환경과 국제 정세에 관심을 가지며 금융 지식도 높은 편이다.

재미와 경험 중시, 잘파세대의 소비 스타일

잘파세대는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을 접한 까닭으로 디지털 피로도 역시 높은 편이다. 팬데믹 이후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갈망이 커져있는 것도 사실. 이에 따라 ‘팝업 스토어(Pop-up Store)’가 성업 중인데, 소비를 통해 재미와 경험을 찾고 싶어 하는 잘파세대의 성향에 딱 맞아 인기만점이다.

잘파세대의 놀이터로 불리는 팝업 스토어는 웹 페이지의 팝업처럼 깜짝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오프라인 매장을 말한다. 매장 자체가 광고판 역할을 하는 팝업 스토어는 연예인과 인플루언서가 방문하는 데다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한정판 굿즈와 신선한 체험 등을 제공해 ‘오픈런’으로 종종 이어지기도 한다. 이 특별한 브랜드 경험은 곧장 소셜미디어(SNS)에 업로드 된다. 그 덕에 자연스럽게 바이럴 마케팅 효과도 누릴 수 있다.

기업에서는 당연히 팝업 스토어를 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버버리’는 지난 11월 5일까지 성수 로즈 팝업 스토어를 열어 화제를 모았고, 2024년 4월 21일까지 진행되는 ‘샤넬’의 조향(調香·향기를 조합함) 마스터클래스도 인기다. 지난달까지 운영한 대상 중가의 ‘김치 블라스트 서울 2023’도 누적 방문객 숫자 1만 명을 돌파했다.

잘파세대의 패션 키워드는 성별 구분이 없는 ‘젠더리스’다. 의류 브랜드 ‘에잇세컨즈’는 다양한 사이즈와 디자인을 제공하는 젠더리스 섹션 ‘유니스’를 신설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남성이 주얼리를 착용하고 스커트를 입거나 여성이 트렁크를 입는 등 성별의 경계를 구분 짓지 않는 잘파 세대의 ‘확장된 취향’을 제대로 파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한카드의 ‘폴리 체크카드(산리오 캐릭터즈)’도 잘파세대 마음을 사로잡았다. 신한카드가 일본 대표 캐릭터 기업 ‘산리오’와 협업해 출시한 이 카드는 출시 이후 한 달 동안 10만 장 이상 신청이 들어와 배송과 발급이 지연되기도 했다. 카드가 단지 지불 수단이 아니라 자기 표현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잘파세대에게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스미디어가 자꾸 세대를 구분하는 게 때로는 납득이 가지 않을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세대 구분 역시 타인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하고 싶어 하는 우리의 본능이기도 하다. 새 시대 주역이 될 잘파세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계획할 필요가 있다.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잃지 않는 존재감을 가지기 위해, 다른 세대와 조화롭게 공존하는 포용력 있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다.

근대문화 도시, 군산 아픈 역사를 더 나은 미래가치로!

전라북도 군산에는 일제강점기에 전주에서 군산까지 뒹아놓은 신작로가 ‘전군가도’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다. 군산 시내 월명동과 여객선터미널 부근에는 일본식 가옥과 조선은행 건물, 적산가옥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기도 하다. 이곳은 아픈 역사를 지워버리기보다 그대로 보존하고 기억하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다.

글·사진 문화진 여행작가(지체장애)



어른에게 향수를, 어린이들에게는 새로움을 선사하는 군산 이색명소 ‘경안동 철길마을’

일본식 사찰의 모습을 그대로 보존한 동국사

군산의 동국사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겨진 일본식 사찰이다. 한국식 전통 사찰은 별도의 독립된 건물을 갖추었지만, 이곳은 대웅전과 요사채가 실내 복도로 이어져 있어 특별함을 자아낸다. 또한 화려한 단청이 있는 우리나라 사찰과는 다른 양식을 띠고 있는데, 건물 외벽에 창문을 많이 달았고 아무런 장식이 없다. 이는 우리나라와는 확연히 다른 일본만의 특색을 보여준다.

동국사는 도심에 있어 산속의 사찰보다 접근하기 쉽다. 다만 사찰 입구에 가파른 경사가 약간 있고 사찰 내부에는 자갈과 돌이 깔려 있어서 휠체어로 이동하기에 조금 어렵다. 하지만 사찰 입구에서도 한눈에 전체적인 풍경을 볼 수 있으니 둘러보시길 추천한다.



동국사가 일본식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철거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곳에 ‘참사문비’라는 특별한 기념비가 있기 때문이다. 2012년 일본 불교 종단인 조동종 소속 승려들이 모여서 일제의 만행과 자신들의 침병 역할을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참사문비 제막식을 거행했다. 그렇기에 역사적 의미가 매우 큰 곳이다.

근대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곳,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역사는 미래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세워졌다. 이 박물관은 과거 무역항으로 해상물류 유통의 중심지였던 옛 군산의 모습과 전국 최대의 근대문화자원을 전시하여 서해물류 유통의 천 년, 세계로 뻗어 가는 ‘국제 무역항 군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실제로 군산은 국내에서 근대문화유산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하니 이런 박물관이 있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다.

이곳은 바닷가에 자리 잡고 있어 색다른 느낌을 준다. 박물관 관람 후 바닷길을 산책하면 진정한 바닷가 동네라는 생각이 절로 든다. 해양도시인 군산의 근대와 현대를 모두 경험하고 싶은 분들이 방문하시면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다. 또한 현대식 건물로 장애인 편의시설도 잘 갖추고 있어 여행 중 쉬어가기도 좋다.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말랭이 마을

군산의 신흥동은 1930~40년대 무렵부터 현재의 일본식 가옥(구. 히로쓰가옥) 일대에 일본인들이 집을 짓고 살게 되면서 주거지가 형성되기 시작한 동네이다. 6·25전쟁 시기 피난민들이 지금의 해망동, 신흥동 등지에 터를 잡고 살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었다. 당시 바위 위에 판잣집을 다닥다닥 대어서 집을 지었다고 한다.

이곳은 세월이 흘러 초가지붕 가득한 동네가 되었는데, 산비탈을 의미하는 전라도 방언인 ‘말랭이’에 마을을 형성했다. 그래서 신흥동 일대를 ‘말랭이 마을’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최근에는 인구 유출로 인해 원도심화되면서 말랭이 마을에 빈집들이 생기기도 했다. 이후 마을은 크게 변신을 시도했고 주민과 예술인이 함께 살면서 군산을 대표하는 문화 마을, 군산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을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미술관을 보는 느낌이 든다. 특히 옛 모습들이 담긴 벽화가 대표적인 포토존이다.

이용 안내

① 동국사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동국사길 16 동국사

* 이용 요금 : 무료

* 문의 : 063-462-5366

② 군산근대역사박물관

* 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40

* 이용 시간 :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매주 월요일 휴관

* 문의 : 063-454-7870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장애는 예방되어야 하는가?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은 개인적으로 방영 전부터 아주 많은 기대를 했던 작품이었다. 농인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 가족들 사이에서 홀로 청인으로 성장하는 코다(CODA) 소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낼지 자못 궁금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제작단계부터 장애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전문 자문위원에게 특별히 자문도 구했다고 하니 더욱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글. 차미경 문화칼럼니스트

청각장애인 부모를 둔 음악천재 은결의 고군분투기

코다(CODA)는 청각장애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청인 자녀를 뜻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음악에서는 악보에서 곡을 끝내는 의미로 붙는 용어이기도 하다. 이것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힘들어하는 어린 은결을 처음 만났을 때 비바 할아버지가 처음 가르쳐 준 말이다. “코다를 악곡의 끝에 놓으면 이제부터 슬슬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란 뜻이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너도 코다란다. 너처럼 가족 중에서 혼자서만 듣고 말할 수 있는 아이들을 코다라고 불러. 소리의 세계와 침묵의 세계를 이어주는 사람들이지. 말과 손으로 그리고 때로는 너처럼 음악으로.”

첫 화의 이 대사처럼 음악에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은결을 통해 코다의 의미를 새롭고 멋지게 해석해내는 작품일 것이라 기대해 마지않았다. 제목에 ‘워터멜론’은 장애를 가진 불굴의 화가 ‘프리다 칼로’의 작품 ‘Viva La Vida(인생이여 만세)’에 등장하는 그 수박이니 말해 뭐해! 그러나 우연히 1995년으로 타임슬립해 간 은결이 동갑인 아버지 하이찬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는 점점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엄마가 아빠의 첫사랑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하이찬)는 엄마(윤청아)가 아닌 다른 여학생(최세경)을 짝사랑하고 있었다니. 처음엔 은결이 청아와 이찬을 연결해 주려고 애쓰는 게 싶더니, 아버지의 청력을 잃게 만드는 ‘그 사고’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은결의 ‘아버지 사고 막기 대작전’이 되고 만다. 그도 그렇지만 청각장애를 가진 여주인공은 왜 그렇게 소극적이고 수동적일까. 1995년에 만난 엄마 윤청아는 새엄마의 학대로 늘 우울하고 들리지 않는 혼자만의 세계에서 외롭다. 마치 ‘숲속의 잠자는 공주’처럼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누군가 와서 깨워 주어야 하는 존재처럼 그려진다. 청아에게 처음 수어를 가르쳐



tvN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은 1995년으로 타임슬립해 어린 시절의 아버지와 함께 밴드를 하며 펼쳐지는 이야기

세상과 소통하게 하는 것도 미래에서 온 아들 은결이고 침묵의 세계에 침잠해 있는 청아를 '사랑으로' 깨어나게 하는 것은 하이찬의 노력 덕분이다.

‘장애 예방’이 아닌 ‘사고 예방’ 필요

은결이 아버지의 사고를 막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내내 드는 생각은 ‘장애는 이리도 기어이 끝끝내 막 아내야 하는 일생일대의 불행이며 불운인가?’ 하는 것이었다. 흔히 말하는 ‘장애예방’이 저렇게 아름다운 청춘 멜로로 새롭게 구현되는구나 하는 생각. 과연 장애는 예방되어야 하는 것인가?

‘장애 예방’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어야 하고 안전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지 말자’가 아니라 오토바이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안전 수칙을 얘기해야 더 합리적인 대안이 될 것이다. 그리하여 하이찬은 은결 덕분에 ‘그 사고’를 겪지 않고 청각장애인이 되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은결 덕분에 모든 사고를 막았지만 차마 예상할 수 없던 찰나에 은결을 구하기 위해 차로 뛰어든 이찬은 끝내 청력을 잃고 만다. 은결이 1995년으로 가야 했던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 고작 자기 때문에 아버지가 청력을 잃게 되었다는 엄청난 죄책감을 남기려고 했을까? 물론 혼자만 청인으로서 들리지 않는 모든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으로 늘 외롭고 힘들었던 은결에게 일어날 일은 결국 일어나는 것이고 혼자서 그 책임을 다 감당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그러니 마음의 짐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네 인생을 살라는 뜻으로 인생이 준 선물이라 치자. 그래서 결말은?

장애 예방보다 차별 등 사회적 장벽 해소가 먼저

미래로 돌아간 은결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엄마 아빠를 다시 만난다. 여전히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는 엄마 아빠. 그러나 전과는 모든 게 달라졌다. 아빠 이찬은 장인 회사인 진성악기에서 새로운 악기를 출시하고 각광받는 능력 있는 본부장이고 엄마 역시 다양한 직함을 가진 여성 리더가 되어 있다. 모두 행복해 보이는 모습.

미래에서 다시 만난 은유와 은결의 재회 장면으로 드라마는 해피엔딩이다. 그러나 만약 은결이 미래로 돌아갔을 때 여전히 엄마 아빠가 예전처럼 살고 있었다면 불행한 것이고 새드엔딩일까? 장애는 불행한 것이지만 캘러릿 대학교(세계적인 미국의 농인대학교) 출신이라는 것과 대기업의 상속자가 되어 있다는 것으로 행복한 것인가. 결국 행복의 조건은 부와 스펙인가 싶어 어쩐지 씁쓸한 여운을 지울 수 없는 마지막 장면이었다.

미래에 일어날 사고를 모른 채 해맑게 웃고 있는 이찬을 보며 은결이 이렇게 속으로 비는 장면이 나온다. 장애가 있다고 해서 꿈을 꾸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것은 더더욱 아니고 반짝이지 않는 것도 아닐 터이다. 장애가 불행하고 꿈꿀 수 없고 빛나지 않는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어쩌면 철저히 비장애인 입장의 편견 가득한 예단 아닐까. 장애는 그 자체로 불행이거나 불운이 아니다. 장애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에게 불편하고 안전하지 않은 사회적 장벽과 차별을 예방해야 하는 것이다. 장애인은 예방되어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억압과 불편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존재이다.

나누고 싶은 일상의 발견 #이런경험 #이런생각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도 생각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장애인과 일터] 독자가 발견하는 반짝거리는 순간과 경험, 사연을 소개합니다.

‘#공감태그’는 독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공유하고 싶은 일상, 장애인 친화적인 공간과 서비스 등을 사진에 담아 jangteo@kead.or.kr로 메일을 보내 주세요. 사진이 소개된 분께 기프트콘을 드립니다. 이름과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야 모바일 기프트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겨울바다 #고성 #힐링

강원도 고성의 바다를 찾았습니다. 여름의 바다보다 더 파란 색감의 바다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바다에 답답했던 마음까지 시원해집니다. 강원도의 다른 바닷가보다 한적해서 조용히 여행하기 좋은 곳입니다. 이번 주말 고성 여행 어떠세요?

남○희 님



#최강야구 #잠실 #먹방

요즘 최애 프로그램인 최강야구 직관을 다녀왔습니다. 선수들의 열정과 팬들의 열렬한 응원에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고온 것 같아요. 이제 정말 2023년의 마지막 달이네요, 다들 마지막까지 힘내시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채○빈 님



#낙조 #늦가을 #차한잔의 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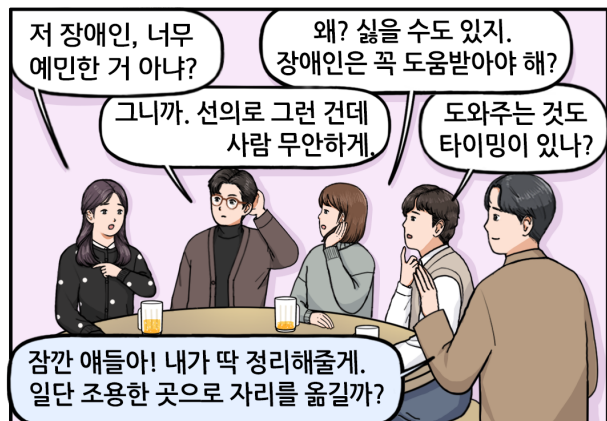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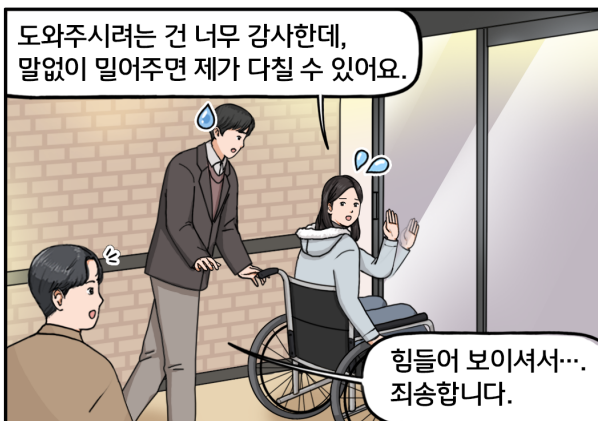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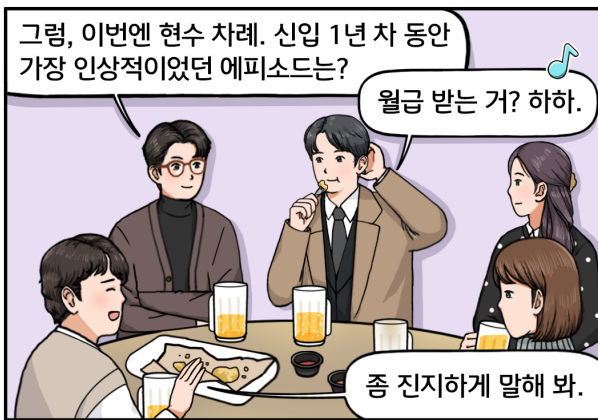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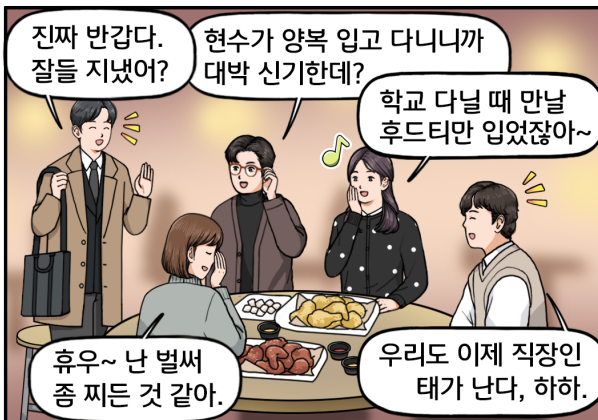
하루의 마감을 석양과 함께 마감인듯 마감이 아닌 아름다움을 가슴 한켠에 간직하고 소중한 인연과 따뜻한 차 한잔의 여유를 즐겨 봅니다. 석양과 함께 하는 아름다움과 따스함을 모두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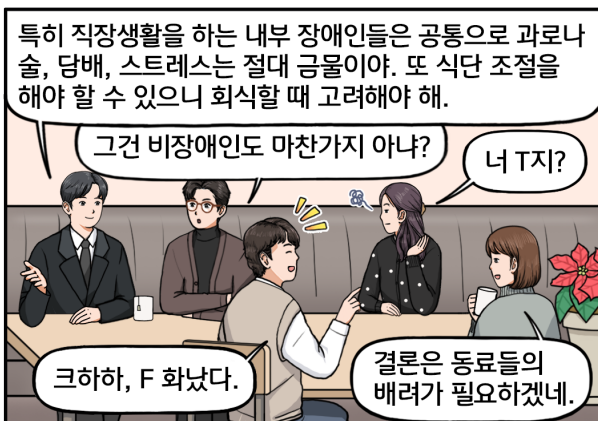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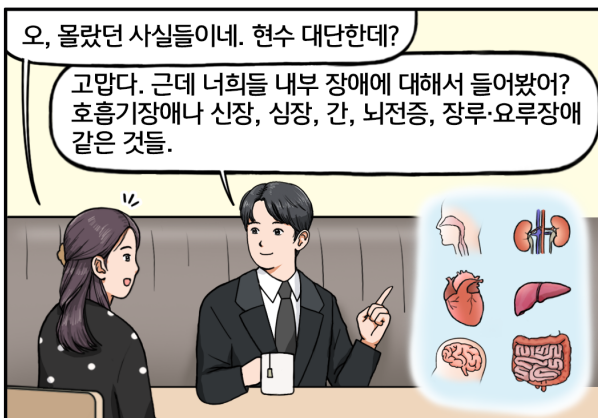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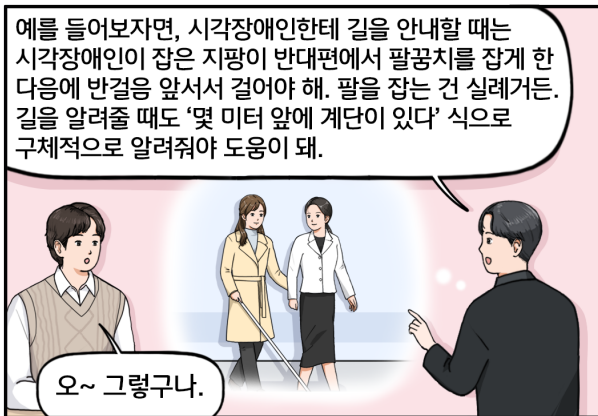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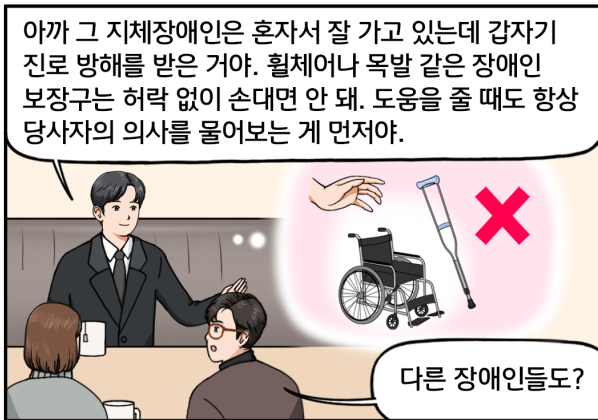
양○현 님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장애 유형별 에티켓

- 뇌전증장애 편

그림 권도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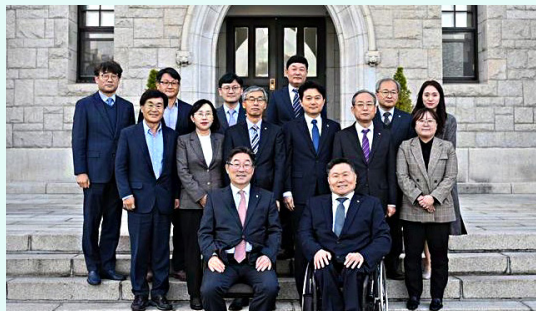
KEAD 뉴스

제15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 성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조윤경)은 ‘제15회 장애인고용패널 학술대회’를 ‘청년 장애인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11월 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성황리에 개최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NYP)의 김기현 청년정책 연구실장은 기획주제 발표에 나섰다. 그는 ‘니트(NEET) 장애 청년: 규모 추정 및 유형과 결정요인’에 대해 연구한 결과 15~29세 청년 장애인의 니트 비중이 35.4%로, 전체 청년(17.1%)의 두 배 이상인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별도 맞춤형 고용서비스와 함께 고용노동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의 김도현 부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발달장애 청년들이 임금이 낮은 직종과 산업군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고, 다른 직장으로의 이직 확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력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고용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력개발, 고용 유지 등을 장기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커리어코치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행사를 주최한 고용개발원의 조윤경 원장은 “고용개발원은 앞으로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실현 방안을 선도적으로 제안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학술대회 기획 주제 발표문이 담긴 논문집은 고용개발원 홈페이지(<https://edi.kead.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고려대, ‘장애인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업무협약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과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11월 7일 고려대학교 내 회의실에서 「사회적 가치 구현 및 ESG경영 실천을 위한 장애인고용증진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보다 지속적인 장애인고용 확대와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장애 친화적 근무환경과 긍정적 인식 기반을 조성하는 등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장애인의 적합 직무를 분석하여 고용모델을 제시한다. 그리고 모집대행과 직업훈련 등 다각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해 장애인고용을 통한 고려대학교 ESG경영 실천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교육기관에서 장애인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의 가치와 성과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고려대학교 김동원 총장은 “고려대학교는 장애학생지원센터를 통해 대학의 장애인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선도하고 있다. 이번 공단과의 협력을 통해서도 대학에서의 장애 근로자 확대 및 적합 직무 개발 등 장애 친화적인 근로 환경 모델을 만들어 대학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화답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배드민턴 선수단 선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 장애인 실업팀 소속 선수 권현아, 유수영, 정겨울, 진기범 선수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이하 전국체전) 휠체어 배드민턴에서 총 7개의 메달(금 5개, 은 1개, 동 1개)을 획득했다. 공단 소속 휠체어 배드민턴 선수단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전라남도 여수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휠체어 배드민턴 단식(4개 세부 종목)에서 금메달 3개와 동메달 1개,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 1개, 공단 선수끼리 맞붙은 혼합 복식에서는 금메달과 은메달을 획득하여 전 종목에서 메달을 따냈다. 공단은 올해 3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최초로 장애인 실업팀(휠체어 배드민턴팀)을 창단했다. 휠체어 배드민턴 국가대표 감독 및 선수 6명을 채용하여 이들이 시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된 훈련 환경을 제공하고,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공단은 지난 3월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와 연구지 협약을 체결해 공단 선수단은 이번 전국체전에 전라남도 대표로 출전하였다. 공단 선수단은 휠체어 배드민턴 7개 종목 중 6개 종목에서 메달을 싹쓸이하며 전라남도 종합 순위 3위 달성에 기여했다. 공단 조향현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공단 소속 장애인 배드민턴 선수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KEAD SNS 하이라이트

‘좋아요·댓글·구독·알림설정’



Instagram

haha_kead

2023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2023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장애인과 함께 선도적인 기업을 선발해요.
2023년에는 어떤 기업이 선정되었는지 우리 함께 알아볼까요?

Instagram

haha_kead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색적인 스포츠 종목

최근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스포츠!
그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이색적인 운동 종목
'쇼다운'에 대해 내공내일기자단 10기
한유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N blog

blog.naver.com/kead1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되려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두가 즐기는
테마파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테마파크 배리어프리에 대해
내공내일기자단 10기 내일팀이 소개해드립니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테마파크가 되려면

N blog

blog.naver.com/kead1

누군가는 즐길 수 없는 축제
다양한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가을,
모두가 마음 편히 즐길 수 있었을까요?
장애인 문화접근권에 대해 내공내일기자단
10기 공드리팀과 함께 확인해봅시다.

누군가는 즐길 수 없는 축제

